

현대사회서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5. 마무리하며

저자의 말
불교는 언제나 새롭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물론 오래된 체제나 표현은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옛 모습대로 지나거나 받아들이면 결코 올바른 불교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들 생각의 지점이 된다거나 힘이 될 수는 없으리라고 본다.

〈법구경(法句經)〉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다.”

옛 사상 전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또한 방안에 골동품을 장식하는 것과 같을지 모른다. 따라서 옛 체제나 용어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고 만다면 어떤 의미로는 지식의 악세사리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교를 현실에 맞게끔 이해하며 우리들의 의식에 비추어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은 불교 그 자체와 언제나 맞부딪쳐야 한다. 그러한 태도로 이 크나큰 가르침을 대할 때 불교는 비로소 신선한 생명력으로 소생되고 이해되며 새로운 힘으로서 생활의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들은 지금 현대라는 산업사회를 호흡하는 사람으로서 불교를 어

떻게 이해하는가, 또 불교로부터 어떠한 삶의 지표와 힘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답을 얻기를 바란다.

역자 후기

불교는 오늘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2500년의 시간적 간격, 판이한 문화 충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정녕 그 지혜와 자비의 빛이 새롭게 조명(照明)되어야 하리라는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불교 위에 현대라는 옷을 입히는 작업은 무척 까다로운 일이다.

올바르지 못한 믿음은 곧 ‘狂信’

후광만 남은 종교는 역할 못해

佛法에 대한 냉정한 분석 필요

불교, 시대정신 맞게 이해돼야

우선 ‘현대’라는 척도(尺度)가 가진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불교의 배후에 있는 그 숭한 암시와 상징을 가슴속 깊이 공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닫혀진 마음의 창이 열리고, 두터운 편견의 벽이 부서질 때 불교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뜻 깊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

끈 많지 않은 저술 가운데 하나가 마츠다니 후미오의 〈현대불교입문〉이다. 저자는 〈중앙사상의 형성〉 〈불타(佛陀)〉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연구〉 〈불교백화(佛敎百話)〉 등의 명저(名著)로 이미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저술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언어,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예제가 번득이는 그 해박한 사상성이 우리는 공감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원래 그는 대학에서 ‘불교학 개론’만을 30년 이상 강의해온 사람이다. 외길을 걸을 수 있는 학문적 풍토도 부럽지만, 그 신념 또한 존경 할만하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그 대강의 윤곽이 부각될 것이며, 불교를 친숙하게 대하던 이들에게는 사상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못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의 시각(視角)이 보다, 그 분의 가르침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다. 불교는 석가교(釋迦敎)가 아니다. 붓다는 인간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한 분이며, 괴로움의 실존(實存)을 초극(超越)한 구도(求道)의 나그네이다. 그와 같은 인생 행로가 가능했다는 것이 우리들 중생의 삶을 윤기 있게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세주(救世主)로서 군림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불교에 대한 오해와 난점(難點)이 있다. 아무튼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이와 같이 다양한 물음에 대해 이 책은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과 그 다양한 역사적 변천에 관해 산더미처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그것은 수많은 입장과 관점에서 서

술된 것이지만 진실로 그것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끊임없이 부처님께 묻고 해답을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붓다를 냉정한 타자(他者)로 분석해야 하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종래의 그릇된 붓다관(佛觀)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우리가 놓쳐 버리기 쉬웠던 그 생애의 정점(頂點)을 명확히 지적한다.

우리는 물론 마츠다니의 견해를 전적으로 추종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견해에는 많은 논리적 결함이 있고, 반박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가 앞서 언급한 ‘불교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자(譯者)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불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올바른 믿음은 광신(狂信)이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지성의 오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종교는 양약(良藥)으로서가 아니라, 이른바 눈물의 후광(後光)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나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불교는 결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도전적으로 현실에 부설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생생하게 우리의 예지에 호소하며, 마음의 밑바닥을 향해 무언(無言)의 교시를 주고 있다.

이 자그마한 책을 통해 올바른 불교 이해의 한 방편이 제시될 수 있다면 역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끝>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예수와 유다도 될 수 있고

한 젊은 화가(畫家)가 있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다. 그의 생각은 언제나 ‘최후의 만찬’에 머물러 있었다. 사랑과 구원의 상징 예수와 베드로와 요한 등의 열두제자를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싶었다.

성찬식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일 년에 여러 번 부정기적으로, 가톨릭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성체성사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아무튼 이 청년이 예수에 대한 영감(靈感)을 얻기 위해 여행길에 나서게 된다.

어느 한적한 시골 교회에 이르러 그는 데어스름이 내리는 초저녁 무렵의 일이었다. 자그마한 시골 교회 안에서 한 젊은이가 무릎 꿇은 자세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어두워지는 유리창을 통해 본 그의 모습은 성자(聖者)의 모습 그 자체였다. 기도하던 젊은이가 밖으로 나오자 통성명을 하게 된다. 화가는 그에게 스케치 대가로 약간의 모델료를 주려 했으나, 그는 사양하며 잔잔한 미소와 함께 떠나갔다.

꿈 깨고 다시 보면

꿈 속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육도 윤회가 있었는데(夢裏明明有六趣), 깨달음을 이룬 후 모든 게 비고 비어 삼천大千세계마저 없구나(覺後空空無大千). 육도 해능의 제자인 영가 스님의 계승이다.

깨닫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 그 경계를 나타낸 글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존재이다. 어딘가에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꿈꾸게 되고, 현생(現生)의 매듭을 내생(來生)에 가서라도 풀려고 한다. 막연하게나마 사후(死後) 세계를 믿게 되고, 육도윤회(六途輪廻)에서 위안마저 얻게 된다. 뜻대로 되는 일이 줄어들수록 전생(前生)의 업(業)을 떠올리게 되고 정해진 운명을 믿게 된다.

하여 이들이 있어 종교는 성업(盛業) 중이고, 신앙은 가치를 더해 뿌리를 깊게 내린다. 그러하여 배고픈 신부(神父) 없고, 가난한 목사(牧師)없으며, 주머니 빈 승려(僧侶)가 없는 것이다.

천국도 지옥도 내 스스로 만든다 만일 자유가 그림다면 우선 비워라

예수의 얼굴을 화폭에 옮긴 그 화가는 다시 길거리를 헤매게 된다.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늦은 밤 가로등도 없는 번두리 골목길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큰소리치며 토악질을 해대고 있었다. 머릿결은 험렁어진 채 초췌한 모습으로 바지를 내려 노상방뇨까지 하고 있는, 있는 그대로 찾아 헤맨 유다 그 자체였다. 하여 화가는 술주정뱅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자기는 화가이고 이름은 레오나르도다빈치라고, 그리고 스케치 대가로 모델료를 지불했다. 그러자 술주정꾼이 하는 소리다. “이왕 모델료를 주려거든 예수를 대신한 예전의 밀린 돈까지 주고 가시지.”

하여 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다빈치는 예수의 얼굴도 유다의 얼굴도 완성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상징인 예수도 될 수 있고, 배반의 상징인 유다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자유의 감옥에 들어가거나 살해당한다 해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새벽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하질 않았던가.

우리는 예수도, 유다도, 베드로도 될 수 있다. 천국의 삶, 지옥의 삶도 내 스스로 선택해 만들어가는 삶일 테니까.

일부 성직자의 눈에는 신도들이 먹이로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부모도 마다하고 떠나 온 승려가 신도 생활을 기억하고 전화질을 해대거나 신도를 성도(聖徒)라고 부추기며 주판알만 굴리는 목사도 수도룩할 테니까.

그러나 깨달음을 이루고 보니 모두 다 부질없는, 집착할 게 없는, 비고 비어 삼천大千세계마저 비고 없음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다. 속박에서 해탈로 열매에서 자유로, 이르는 곳마다 세상의 중심이며 날마다 좋은날이 되는 것이다. 극락도 지옥도 천사와 악마도, 말쑥씨 좋은 신부와 목사, 승려들의 도움 따윈 벗어 던진 지 이미 오래이다.

집착이 없어 편안하고 무소유(無所有) 삶이라서 행복하다. 오늘은 오늘로서 오늘이 중요할 뿐 내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어 넉넉하다. 각후공공무대전(覺後空空無大千)은 깨달음을 이룬 자유인이 거침없는 노랫가락이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他人)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個人)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자유가 그림거든 우선 놓고 비워야 할 터이다.

꿈 깨고 다시 보면 세상은 또 다른 세상으로 환히 열려 보일 테니까.



2007년 봉암사 결사 60주년 법회에서 사부대중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시대 정신에 맞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블루인이라면 누구나 기반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반

기반을 깔아놓기만 하면, 온몸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

기반을 깔아놓기만 하면, 온몸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

www.hyunbulshop.com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쪽양초는 그윽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쑥양초 선물세트 6p

밀납양초 선물세트 6p

향초를 직접은 예쁜 그릇!!

향초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 지름 6cm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